

- TBN 인천교통방송 토론회 김건수 교장선생님 참여 -

인천 원도심인 중구, 동구, 남구 지역은 동산고를 비롯, 과거 인천고, 제물포고, 인천여고, 인일여고, 인성여고, 동인천고, 송도고, 대건고 등이 소재하며 전통과 명성을 날리던 인천 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경제 개발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 외곽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곳에는 신흥 중산층이 대거 유입되어 교육 수요가 팽창되었다. 원도심 주민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 현편이 되는 대로 낙후된 지역을 벗어나 신개발 지역으로 물러갔다. 원도심은 수십 년간 교육 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학생들보다 학교가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인천고를 시작으로, 송도고, 대건고, 동인천고, 인천여고 등이 신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수고 학교고 등 신설 학교들과 경쟁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도 인근의

박문여중고의 송도신도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광성고도 청라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산고는 동구 유일의 일반계 학교로 곳곳이 남아 있지만, 인구 감소와 함께 낮은 경제수준, 교통의 불편, 낙후된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이 맞물려 학급수도 9개, 학급당 학생수도 20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치는 등 신개발 지역의 학교들에 비해 반 밖에 안 되는 학생 정원으로 점점 교세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이 돌봄 못서 매년 높은 진학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원도심 지역은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며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 교육의 근간이 되어 왔던 원도심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역 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원도심의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력신장을 통해 유출 학생 자원을 유턴하게 하여 인구와 교육 수요가 돌

아오게 해야 한다. 그런 목적에서 인천 교육청은 올해부터 원도심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천억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원도심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20일 인천교통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본교 김건수 교장과 노현경 시교육위원, 이호근 교육청 담당관, 기호일보 한동식 부장이 참석하여 이런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개선책의 실효성을 따져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건수 교장선생님은 원도심 학교를 대표하여 당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인천 교육청의 원도심 교육개선을 위한 2013년도 실행계획을 들어, 연구학교 지정 확대, 교장공모제를 통한 우수교원 배치, 스마트교육추진, 기초학력 보장, 노후교육시설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전문상담사 배정 등이 대부분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거나 조금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도심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원거리 배정 학생 수용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연수구 송도 및 남동구 민수동 등 원거리에서 배정받은 학생들이 30%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이 등교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설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매년 배정 불만에 대한 민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준다면 배정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우수학생 유치도 가능하여 원도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도시 학생들과 같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교육비 감면과 우수학생,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력향상 지도 예산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원도심 교육력 향상의 보루가 되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과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부응하여 사제동행으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동산의 전통과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팀)

